청련사 생전예수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생전예수재 전승사찰 전국서 두 번째 지정

계보 따라 예수시왕생칠재 설해
어장 상진 스님 염불율조 뛰어나
문화재적 가치 바탕 연구활동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21년 10월 14일 실행된 청련사 생전예수재 모습.

불교 전통방식으로 50년 넘게 보존, 전승돼온 양주 청련사 생전예수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청련사는 서울 봉은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전예수재를 무형문화재로 계승하는 사찰이 됐다.

경기도는 5월 20일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를 경기도 무형문화재 66호 생전예수재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인증서를 청련사로 교부했다.

청련사는 20세기 초부터 경제(京制) 동교(東郊) 파에 속한 주요사찰로, 1910년 청련사에 출가한 능해(能海, 1892~1979)로부터 덕봉(德奉, 1911~1994), 청호(淸湖, 1915~1999), 춘담(春潭, 1915~1960), 벽파(碧波, 1939~2011), 백우(白牛, 1934~2015), 상진(常眞, 1956~)의 전승계보에 의해 예수시왕생칠재를 설행해오고 있다.

1960년대부터 스님들이 범패와 작법, 장엄으로 생전예수재를 봉행하면서 수대에 걸쳐 의식을 이어오는 가운데 어장 상진 스님의 염불율조가 어우러져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련사 생전예수재는 의례의 핵심인 범패와 작법무, 장엄을 사중 스님들이 온전히 전승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례 설행이 청련사에 상주하는 스님들에 의해 설행될 뿐 아니라 전통의식인 재의 핵심을 범패로써 이끌며 사찰 사부대중이 현재까지도 이를 계승해 봉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청련사는 경기도 양주로 이전하며 보존회와 안정불교대학을 중심으로 예수재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재의 활성화를 위해 설행시기를 '윤달이 든 해'에서 '중양절'로 조정하여 해마다 설행하고 있다.

청련사는 2010년 체계적 전승을 위한 보존회를 발족,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로 명명했으며, 2012년 백련암 등 20개 사찰 윤달예수재, 2014년 삼화정사 등 21개 사찰 윤달예수재, 2017년 고림사 등 28개 사찰 윤달예수재를 열었고, 2017년 7월, 2018년 9월, 2018년 10월, 2019년 10월 각각 생전예수재를 연 바 있다.

2019년 시연회에서는 문화재 위원들이 참관해 전승 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법주 상진 스님은 "청련사 생전예수재는 사중에 어장(법주)과 의식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스님들이 지금까지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무형문화재 지정을 전승단체로서 추진하는 이유 역시 후배들이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도제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향후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는 청련사 대중승려뿐만 아니라 안정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사)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 회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학인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행사와 공연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를 비롯해 한국 불교의례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는 예수재를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조명하는 연구와 학술 활동에도 나선다.

한편 청련사는 신라 흥덕왕 2년 '안정사'라는 사명으로 창건된 후 조선초 무학대사가 중창, 도성의 비보사찰이자 나라의 안정을 발원하는 도량으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양주 청련사는 안정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법맥을 계승한 도량으로, 2010년 완공됐다. 창건 이후 여덟 번째 중창이다.

합천 대원사, 미륵불 개금불사 성만

6월 11일 점안법회 봉행…주지 해불 스님 축원


대원사 사부대중이 포대화상 개금불사 제막을 하고 있다.

합천 대원사(주지 해불, 삼론종 총무원장)는 6월 11일 미륵불(포대화상) 개금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한불교삼론종 3대 종정인 혜공 대종사를 비롯해 승정원장 진봉 스님, 교육원장 법지 스님, 총무부장 근혜 스님, 성관 선원 현각 스님, 성불사 혜산 스님, 달마사 청오 스님, 도솔암 자원 스님, 약사암 성현 스님, 천진사 응진 스님, 영남범음범패 청하 스님 외 스님, 남병환 대원사 신도회장 등 150여 대중이 동참했다.

삼론종 3대 종정 혜공 스님은 법문을 통해 "아름답게 모셔진 포대화상를 보니 거룩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깨달음으로 나투신 미륵부처님처럼 모두 성불하길 바란다. 코로나로 어려운 세상이지만 불사 공덕, 인연으로 가정과 사회가 평화롭고 더불어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원사 주지 해불 스님는 "포대화상은 미륵부처님의 화현이다. 점안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이 건강하고 날마다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故 선진규 원장 2주기 추모법회

김해 정토원, 6월 8일 수광전서 봉행…50여 명 추모


김해 정토원은 6월8일 정토원 수광전에서 故 선진규 원장 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경남 김해 봉화산 정토원 선건 이사장은 6월8일 정토원 수광전에서 故 선진규 원장 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정토원 법공 스님, 등명 스님 등 스님들과 유가족 대표 선기 씨, 선건 이사장, 이장명 신도회장, 법성 거사, 황재현 법사 등 신도회 5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 진행은 추모법회, 유족대표 선기 씨 인사, 선건 이사장 인사말, 이장명 신도회장 추도사, 선진규 원장 제자 법성 거사 추도사, 황재현 법사 추모시 낭독, 바라춤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선건 정토원 이사장은 "故 선진규 원장이 떠나던 마지막까지 아미타불을 염송한 것이 눈에 선하다"며 "2주기를 맞아 정토원 사부대중에게 남기신 3가지 수칙의 소중한 유산을 지혜롭게 실천하는 도반이 되자"고 강조했다.

故 선진규 원장이 남긴 3가지 수칙은 첫째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은 언행을 하자, 둘째 남들에게 욕먹지 않은 언행을 하자, 셋째 일체중생에게 무상보시 언행을 하자 등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지역 인재 육성 나서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1000만 원 전달



장학금전달식 후 참석자들이 모여 행사를 기념하고 있다.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가 진안지역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또 전주 천지사 봉사단,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은 동전 저금통 100개를 모아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전달했다.

6월 14일 진안군청(군수 전춘성)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진안사랑장학회 인재양성 장학금 전달식에는 전주 천지사 주지 현진 스님과 전춘성 진안군수, 전북 나누우리봉사단 이재현 단장, 노금숙 부단장,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최주연 센터장, 소년원협의회 어머니회 김도은 단장, 정해자 회장, 마이산탑사 이금수 거사림회장, 김성규 전주시의원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진성 스님은 "마이산 탑사는 항상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봉사를 실천하는 도량이다"며 "탑사 갑룡장학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장학금이 지역 인재 육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땅끝 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점술 개인지도 · 신기/신가물/제자 환영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